

임인년, 거대 IPO 쏟아진다... 70兆 LG엔솔, 이달 증시 입성

(에너지솔루션)

기업가치 1조 이상 기업 14곳 상장
상반기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예고
마켓컬리·오아시스 연내 상장 추진

검은 호랑이 해인 올해는 공모금액 1조원이 넘는 대어들이 줄줄이 증시 입성을 앞두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94개이며 공모규모는 20조4500억원으로 역대급 IPO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조7000억원 대비 326% 급증한 규모다. 종전 최대 규모인 2010년 보다 2배 넘는 규모다.

그럼에도 업계는 올해 IPO 공모금액이 종전 신기록을 다시 경신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고 몸값이 예상되는 LG에너지솔루션을 선두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일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가치가 1조원 넘는 기업만 14곳이 줄줄이 증시 입성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벽배송의 대표주자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등도 연내 상장 준비에 한창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독일 에너지기업 RWE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ESS 프로젝트 2곳에 총 800MWh 규모 ESS 배터리를 공급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총 3조1000억원(26억2000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GTL(Gas-to-Liquid) 플랜트를 준공했다.



서울에서 운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렌터카 플랫폼 서비스 등 사업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70조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증시 IPO 사상 최대어로 꼽힌다.

이달 코스피 입성 예정인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공모금액은 최소 10조9225억원에서 최대 12조7500억원이다. 투자업계 일각에선 LG에너지솔루션의 몸값이 100조원대도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를 뛰어 넘어 국내 시총 2위에 오르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11~12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

행한다. 이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18일과 19일에 공모청약을 진행한 후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공모가가 희망공모가 상단으로 결정되면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단숨에 7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어 올 상반기에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도 상장에 나서며 공모주 시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2월 상장을 추진 중이며 오는 25~26일 기관 수요예측, 2월 3~4일 일반 청약에 거쳐 내

달 중 상장할 예정이다. 예상 시가총액은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며 공모 예정 금액은 9264억~1조2112억원이다. 이는 건설업종 내 시총 1~2위 수준이다. 예상대로 상장이 진행되면 모회사인 현대건설의 시총을 넘어 건설 대장주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달 13일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으며 이 또한 상장후 시총이 10조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특히 업계에서는 새벽배송의 3대 주자 SSG닷컴과 마켓컬리, 오아시스의

기업 가치를 각각 10조원, 5조원, 1조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증권업계에서 예상하는 시총 규모는 SSG닷컴이 약 10조원으로 3사 중 1위다.

이들은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를 상장 대표 주관사로 선정해 상장 준비에 나서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굵직한 증시 입성 상장사가 많아 IPO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신한자산운용-신한대체투자운용 통합법인 출범

“자산운용업 본질, ‘고객의 성공투자’ 실현”

‘값진 내일을 위한 투자솔루션’ 비전
전통자산부문 대표에 조재민 영입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운용의 통합 법인 신한자산운용이 공식 출범했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조재민 전통자산부문 대표와 김희송 대체자산부문 대표,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한자산운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선 신한자산운용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값진 내일을 위한 투자솔루션’란 비전을 통해 신한자산운용은 자산운용업의 본질인 투자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성공적 투자를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영상편지를 통해 “신한자산운용이 통합을 계기로 자본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 일류운용사로 성장하고 고객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최고의 투자솔루션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1년 1월 BNP파



지난 3일 김희송 신한자산운용 대체자산부문 대표(왼쪽 두번째), 조재민 전통자산부문 대표(세번째)가 임직원들과 함께 신한자산운용 통합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

리바와의 합작을 끝내고 신한금융그룹의 완전자회사로 출발해 상품의 개발,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장지수펀드(ETF), 타켓데이트펀드(TDF) 확대의 원년으로 삼으며 큰폭의 성장을 이뤄냈다. 실적면에서도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25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8% 성장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통합으로 신한자산운용은 대형 종합자산운용사로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주식운용의 전문가이며, 운용사 대표 경력 20년의 베테랑 조재민 사장을 전통자산부문 대표로 영입, 운용부분의 시장변화에 대처할 예정이다. 또 2017년 신한대체투자운용 설립과 함께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돼 다양한 딜소싱 통해 대체투자 전문회사로 성장시킨 김희송 사장을 대체자산부문 대표로 선임해 대체운용의 전문성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신영증권-스프랏운용 美 아마존 물류센터 1억弗 투자

신영증권과 스프랏코리아자산운용이 미국 아마존 물류센터에 투자했다.

신영증권과 스프랏운용은 최근 미국 아마존 물류센터 투자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투자 규모는 약 1억 달러(약 1200억원)다. 앞으로 신영증권은 총액 인수 후 국내 기관투자자에 재매각(셀

다운)할 예정이다. 스프랏운용과 링컨프로퍼티컴퍼니(Lincoln Property Company)가 현지 자산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스프랏운용은 캐나다 자원 전문 자산운용사인 스프랏(Sprott)이 국내에 설립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링컨프로퍼티컴퍼니는 미국의

부동산 개발·운영회사다.

신영증권과 스프랏운용이 투자한 아마존 물류센터는 지난해 하반기에 준공된 신축 건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했다. 총면적은 약 1만 6000㎡(약 5000평)다.

이 건물은 해당 지역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라스트마일(last mile) 물류센터다.

/박미경 기자

신한금투, ‘프로PB랩 서비스’ 출시

일대일 맞춤형 자산운용 서비스

신한금융투자가 4일 종합자산관리서비스 ‘프로PB랩 서비스’를 출시했다.

프로PB랩은 고객의 투자성향 및 목적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춘 영업점의 프라이빗뱅크(PB)가 일대일 맞춤형 자산운용 서비스다.

프로PB랩은 한 계좌 내에서 국내·해외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추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투자자산을 일일 운용하는 서비스다. 전문 자격증을 갖춘 프로PB와 일대일 대면 투자상담을 통해 맞춤형 운용제안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해외 주식 매매시 발생하는 개별 매매수수료의 걱정없이 합리적 수준으로 정해진 랩 수수료만 부담하면 전문 운용역들의 포트폴리오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

다. 시장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차별화된 지점 운용형 랩만의 강점이다.

프로PB랩은 ▲국내·해외 주식, EL S, 펀드 등 다양한 투자자산을 활용해 고객 여타 자산에 대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자산배분을 하는 ‘올인원형’ ▲신한금융투자 IPS본부에서 제공하는 선별된 모델포트폴리오를 통해 소액으로도 일일운용을 경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형’ ▲국내와 해외주식 운용을 통해 고객자산 수익률 증대에 더 집중하는 ‘마스터형’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프로PB랩은 편입자산이 해외주식으로 운용되어 매매차익 발생시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美 S&P ETF 총보수 인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 S&P500레버리지 ETF’ 총 보수를 연 0.58%에서 0.25%로 0.33%포인트(p)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총보수 중 최저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집합투자업자보수율을 연 0.51%에서 0.20%로, 신탁업자보수율을 연 0.03%에서 0.02%로,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을 연 0.03%에서 0.02%로 각각 인하했다. 지정 참가회사 보수율은 연 0.01%로 동일하다.

/구남영 기자

금융투자교육원

‘IB업무 이해’ 교육생 모집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IB 업무 담당자를 위한 ‘IB업무 이해’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IB업무 이해’는 오는 24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2월 16일부터 개설된다.

이 과정은 투자은행(IB) 시장현황 및 업무특성, 가치평가(Valuation) 실무 등 IB업무 전반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12일간 47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3일(월·수·금), 야간(17:00~21:30)에 진행된다. /박미경 기자